

고온기 육묘장 병해충 확산 우려, 시설 안팎 관리 강화해야

- 농촌진흥청, 여름철 육묘장 병해충 예방 관리 당부

- 잡초·외부 식물·출입구·방충망 등 유입 경로 차단해 피해 확산 방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육묘장 내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시설 안팎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해충 유입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육묘장은 본밭에 옮겨 심을 모종을 짧은 기간 동안 <주변 잡초 관리가 잘 된 육묘장> 안 대량 생산하는 시설로, 사계절 운영된다. 여름철은 높은 기온으로 해충의 산란과 증식이 빨라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는 데다,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병 발생 위험도 크다. 또한, 육묘 시설 내부는 작물이 밀집해 있어 한 번 병해충이 유입되면 짧은 기간 안에 확산하기 쉽다.

특히 바이러스는 담배가루이, 진딧물, 총채벌레 같은 해충이나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감염된 모종이 본밭으로 옮겨지면 재배 기간 내내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육묘장 주변 잡초와 외부에서 들어온 모종, 시험용 식물, 관상용 화분, 출입구와 방충망 틈 등은 모두 병해충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줄이는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육묘장 관리자는 시설 주변 잡초를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출입구와 측창 주변처럼 해충이 유입되기 쉬운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작물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식물은 육묘장 내부에 두지 않도록 한다.

방충망과 출입구 관리도 중요하다. 방충망은 찢어지거나 벌어진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수하고, 출입구에는 작업자와 자재 이동에 따른 오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이중문, 에어커튼, 소독 매트 등을 설치한다. 황색 끈끈이 트랩 등을 활용하면 담배가루이와 진딧물 같은 작은 해충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이세원 과장은 “육묘장 병해충 관리는 발생 후 방제보다 유입 차단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특히 여름철은 높은 기온으로 해충의 발생과 확산이 빨라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시설 주변 잡초와 불필요한 외부 식물을 제거하고 방충망과 출입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묘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라고 말했다.

붙임. 육묘장 병해충 유입·방제를 위한 환경 관리 우수 사례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세원 (063-238-6300)
		담당자	연구사	최세령 (063-238-6321)
				



시설 주변 잡초 관리



시설 내 잡초 발생 억제 관리 우수



방충망 설치 및 관리 우수



끈끈이트랩 활용 해충 발생 확인